

“항상 기뻐하라”

살전 5:16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중에 첫째를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기뻐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야 마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넉넉히 뛰어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영양실조가 되면 병들어 비틀거리는 것처럼 마음이 영양실조가 되면 병들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에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이 바로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만병 치료의 양약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삽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순간 순간 우리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가 마른다면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오늘날 많은 우리의 병들이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약으로 처방하지만 영구적인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만병 통치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기뻐해도 좋고 안 기뻐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은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1.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건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ealth'입니다. 그런데 이 'Health'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Holy'(거룩함, 신성함)에서 왔습니다. 결국 건강은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영혼 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빌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할 때는 세상적인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뻐할 때에는 사업이 잘된다든지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든지 혹은 회사에게 무슨 상을 받았든지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을 받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오는 기쁨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저절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죄가 있으면 기쁨은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 고백함으로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우리 영혼을 자꾸 파먹어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쁨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영혼은 굶주립니다. 배가 고프면 기쁨이 사라지듯 말씀에 주린 영혼도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 말씀을 공급 받아야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습관적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이레테'(chairete)에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기쁨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분개할 이유를 갖고 살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울하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충만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기뻐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성령충만한지 아닌지의 바로미터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길을 가다가도 자꾸 웃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오고 즐겁습니다. 어느 사람은 길 가다가 백불 짜리 돈을 주는 것 같이 그냥 기분이 좋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이 살아지는 순간 우리는 성령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성경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기쁨의 존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을 새로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원래 있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시편

16장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 즐거움이 넘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살게끔 만들어온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기쁨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주변에도 기쁨이 충만한데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 환란도 기뻐하라

(약 1:2)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란 혹은 유혹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사도는 여러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혹은 신앙적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환란을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 자체는 싫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어질 축복을 생각하면 기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특히 그리할 때 많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으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정금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환란도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도 아니하고 법에 관심도 없었습니다만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야 자기가 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에 귀를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얇은 세상과 이기주의에서 살 때에는 세상과 탐욕의 소리밖에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소리가 어두워지고 깊은 하나님의 품안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엎드려 있으니 비로소 강단에서 말씀하는 주의 종의 음성이 내 심금을 울리고 내 가슴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통하여 깨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구구 절절히 날 보고 말씀하시고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엎드려 흐느끼며 울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이 내 마음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R. 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진리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부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간구해서 늘 기쁨을 마음속에 갖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눔의 시간

1.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중에 그 첫번째를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 됩니다. 또한 마음의 기쁨이 만병 통치의 양약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쁨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3.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환란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시 119:71) 환란이 기쁨이 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환란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